

전남대 의예 385~390점 서울대 경영 395~397점

‘쉬운 수능’...올 입시 합격선 작년보다 15점 안팎 상승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작년보다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됐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 주요대학 합격선이 원점수 기준으로 지난해 보다 15점 안팎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남대 의예과 합격 가능 점수는 385점~390점, 동신대 한의예과는 370~378점이 될 것으로 점쳐졌다. <관련기사 6면>

13일 광주 일선 고교 진학부장들과 대성학원, 유웨이중앙, 이투스정철, 비상예유 등 입시 전문학원들이 서울과 광주·전남지역 주요대학의 예상 합격점수(원점수 400점 만점 기준)를 분석한 결과 전남대 의예과에 합격하려면 383~390점을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남대 의예과의 경우 지난해 합격가능 점수가 364.4점~366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대폭 상승한 것이다. 동신대 한의예과의 지원가능 점수도 지난해 362점에서 올해 370점~378점으로 상승했다. 대성학원은 전남대 의예과의 경우 380(나군)~390점(가군)을 합격 가능성으로 꼽았으며, 영어교육과는 369~370점, 국어교육과는 367점, 동신대 한의예과는 378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 주요대학의 경우 서울대 경영대에 합격하려면 395~397점을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비상예유는 397점, 대성학원·종로학원·이투스정철은 396점, 유웨이중앙은 395점을 각각 제시했다.

서울대 의예과 394~396점, 연세대 의예과 393~396점, 연세대 치의예과 390~395점, 고려대 의과대학 389~394점 정도로 예측했다. 서울대 사회과학계의 예상합격선은 394~396점, 자유전공학부는 393~396점, 국어교육과는 391~394점으로 서울대 주요 학과에 합격하려면 390점대 초·중반 점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세대 경영계열, 고려대 경영대학 합격선도 각각 392~397점, 392~395점으로 제시돼 높은 점수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 고교 진학담당 교사들은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1~2문제로 대학 입시 성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여 ‘눈치작전’이 극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자료는 가제점 결과를 토대로 추정된 것으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주요대학 예상 합격선

대학	학과 및 학부	대성학원	비상예유	유웨이중앙
전남대	의예과	390		
	영어교육과	370		
	국어교육과	367		
동신대	한의예과	378		
	경영대학	396	397	395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394	394	393
	사회과학계열	395	395	394
	의예	394	396	394
	경영계열	396	395	392
연세대	자유전공학부	393	392	390
	영어영문	391	391	390
고려대	의예	394	395	393
	자유전공학부	391	392	391
	경영대학	394	394	392
	경영대학	393	393	391
이화여대	영어교육	378	382	383
	경영대학	379	383	383
경희대	한의예	384	383	388
	의예	389	394	389
성균관대	의예	393	395	393
	경영학부	388	389	389
한국외대	영어	371	381	382
	경찰행정학과	371	381	382



국화 물결속으로 풍덩 13일 함평군 신광면 자연생태공원에 조성된 국화 들녘에서 관광객들이 노란 국화가 물결치는 꽃길을 걸으며 늦가을 정취에 흠뻑 취해 있다. 지난 1996년 조성된 이 국화 들녘에는 30만본의 다양한 국화가 심어져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출발 단계 전남 마리나사업 요트 다 팔려 지방경기 좋다고?

청와대 경기체감 이렇게 다를수가

“전남도지사가 마리나 사업을 한다고 요트 선착장을 만드는데, (수요를) 4~5년 앞서보고 200석짜리 하나, 100석짜리 하나 이렇게 만들었는데 벌써 300석이 다 찼다고 한다” “안도는 전복이 없어서 못 판다고 한다”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지방 경기가 호전됐으며 언급한 기자 브리핑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 경기가 좋다’는 대표적 사례로 든 것이지만 지방 경제와 시장상황에 대한 정부의 ‘안이함’ 인식 수준을 보여준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의 현실과 동떨어진 ‘고용 대박’ 발언 직후에 나온 것이데, 과장된 면도 적지 않아 정부에 대한 신뢰도만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우선, 김 수석이 지방 경기가 좋다는 설명을 하면서 언급한 전남의 요트 선착장 현황부터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조선·건설 바다...“현실 너무 몰라” 비난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제 1차(2010~201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서 지정된 전남지역 마리나항만은 모두 7곳. ▲함평(20척) ▲목포(57척) ▲화원(100척) ▲평곡(100척) 등 4곳은 서남권으로, ▲암도(100척) ▲남열(100척) ▲소호(100척) 등 3곳은 전남권에 포함됐다. 이 중 이미 운영되고 있는 것은 목포와 소호 정도다. 함평은 개발중이며 나머지는 밑그림만 세워진 상태다.

서민 경기와 상관없는 요트 판매를 지방 경기와 연관짓는 점도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선(造船) 전문단지인 대불산단의 경우 대형조선소의 수주 감소와 중형조선소의 붕괴가 잇따르면서 올 상반기 20여 개의 공장이 경매에 나왔는가 하면, 업체 대표의 아반도주도 속출하고 있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부유층에 국한되는 요트 소비를 지방 경기에 빗대어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위주 발전 전략과 규제 완화로 지방 경제는 황폐화돼 붕괴 직전이고, 부자 감세로 지방 세수도 많이 줄어 붕괴도 못주는 지자체가 많다”며 “서민 고통을 전혀 모르는 함심한 소리”라고 비판했다.

완도군 관계자도 “올 들어 전복 생산량이 줄어 수출할 전복이 부족하고 가격까지 오르면서 일반 소비도 예전만 못하다”면서 “정부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교과서 5·18 삭제 철회하라” 광주 80여단체 규탄

광주시와 시의회, 시교육청, 지역 국회의원, 5·18 관련 단체, 시민단체 대표 80여 명은 13일 광주시청에서 새 역사교과서 5·18 민주화운동 삭제 철회를 위한 광주지역 유관기관·법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를 열고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5·18 민주화운동이 삭제된 것은 민주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관련기사 3면>

강운태 광주시장과 장회국 광주시교육감 등 각계 대표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피 흘려 쌓아 온 자랑스러운

민주정신을 부정하는 반역사적, 반민주적, 반교육적 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각계 대표들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기록은 지난 5월 유네스코(UN UNESCO)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이미 세계인이 배우고 분별해야 할 민주화 운동사의 기념비이자 교과서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연석회의는 ▲중학교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즉각 폐기 ▲중고등

학교 역사 교과서에 5·18이 국내의 민주화운동에 미친 영향과 5·18 기록물의 유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사실 수록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반영 등을 요구했다.

한편, 호남4·19혁명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김영용)는 14일 오전 11시 광주시 동구 계림동 호남4·19혁명기념관에서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월항쟁을 삭제한 데 대해 항의하는 규탄대회를 연다. /최관일기자 cki@kwangju.co.kr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대학원 062)605-1115

우암학원 창학 61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민주주의를 박제화 시킨 학생들의 교과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성명서

실천강령

-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인 5.18광주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을 배제한 중학교교과서 집필 기준을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 행위로 규정한다.
- 우리는 위의 사항들이 “한국 민주주의를 박제화 시켜 과거정권으로 회귀하려는 반민족 세력”의 망국적 행위로 규정한다.
- 우리는 호남정신 없이 이룩될 수 없었던 4.19와 5.18, 6월 항쟁을 국가발전의 축으로부터 원천적으로 배제시키려는 작태를 보면서, 호남정신을 약화시켜 이득을 노리려는 반민족 세력의 무서운 음모로 규정한다.

우리는 이러한 3개항의 악의적 요소가 완전히 척결될 때까지 목숨을 걸고 투쟁할 것을 성명서 채택 및 규탄대회만천하에 선포한다.

성명서 채택 및 규탄대회

- 일시 : 2011.11.14(월) 11:00
- 장소 : 호남4.19혁명기념회관
- 참석 : 130여명 (호남4.19주역)

2011년 11월 14일

호남4.19혁명단체 총연합회 회원일동